

# OCI 광양공장 벤젠 오염 기준치 275배

## 축구장 3개 넓이 공장 땅 밑 기름·유기용제 오염 포스코 광양제철도 심각...환경부는 정화 명령만

### 민주은수미 의원 지적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조사 결과 OCI(주) 광양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공장 내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대형 환경사고에 이어 이들 공장의 토양오염이 수년 동안 방치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산단의 환경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OCI(주) 광양공장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2만4724㎡가 기름과 유기용제로 오염돼 있었다. 기름 성분인 총석유계탄화수소(TPH)의 경우 오염 우려 기준인 2000ppm의 8배가 넘는 최고 1만7211ppm까지,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 3ppm의 275배인 826.4ppm까지 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환경

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업단지 토지·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OCI(주) 광양공장,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 내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2개 공장내 토양 2만 9924㎡가 TPH, 벤젠 등으로 오염돼 있었다. OCI(주) 광양공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나오는 콜타르를 정제, 벤젠·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4년 이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하라는 명령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광양산단의 경우 약 25년 동안, 포항산단은 35년 이상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상유류 저장탱크와 공장 내 배관 등에서 유류가 누출돼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오염 사실이 적발돼도 해당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등 처벌규정이 약해 기업들이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토지환경보전법은 4년 이내에 오염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은 의원은 "법을 개정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오염 기업 명단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우석 OCI(주)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990년 후 반까지 사용했던 폐수저장탱크에서 기름성분이 누출된 것 같다"고 해명하고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100억원 가량을 들여 오염정화 명령을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부패 경찰' 인터넷 공개

### 비위 내용·신상정보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의 비위 내용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속 경찰관과 유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게는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검토된다.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쇄신위원회는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일단락 짓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쇄신권고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렴성이 문제가 된 경찰관을 보일 수 없는 부서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시행하고 경찰 비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비

### 기온 뚝 '쌀쌀'

2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기온은 큰 폭으로 내려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수량은 10~40mm로 예상되며, 밤부터 점차 그치겠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아침에는 순천과 장성이 6도까지 떨어지고,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7~11도 사이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5분 해질 17시 49분 달돋이 13시 18분 달짐 --시--분



우산 준비하세요	오전부터 시작된 비가 밤에 점차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비 14/19℃
목포	흐리고비 15/18℃
여수	흐리고비 17/20℃
나주	흐리고비 13/19℃
완도	흐리고비 15/21℃
구례	흐리고비 12/19℃
강진	흐리고비 14/21℃
해남	흐리고비 14/21℃
장흥	흐리고비 14/21℃
순천	흐리고비 11/19℃
영광	흐리고비 14/19℃
진도	흐리고비 15/20℃
전주	흐리고비 14/18℃
군산	흐리고비 13/17℃
남원	흐리고비 11/18℃
홍산도	흐리고비 16/18℃

〈오전〉 바다	중항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경고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경고	낮음	낮음

〈오후〉 바다	중항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3.0m	목포 07:00	00:0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19:58	12: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5~2.5m	여수 01:54	07:4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5~2.5m	14:10	21: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0/17	7/19	11/20	13/21	14/19	13/18



광주·전남 영어학력평가대회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광주일보사가 공동주최한 2012 전국 초·중·고 학생 영어학력평가대회가 20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20개 초·중·고교 교실에서 3000여명의 수험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2고사장인 광주중의중학교에서 참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1년만에 재심 개시

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991년 당시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기훈(48)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438조 1항에 의해 서울고법에서 재심소송 절차가 진행돼 유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당시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씨의 유죄 근거가 된 필적 감정결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증언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유무에 관계없이 허위 증언이 증명된 이상 형사소송법 420조 2호에 따라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유서 대필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수감결과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의뢰한 감정결과가 엇갈리는 만큼 판단을 보류했다. 앞서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지난 3년1개월간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연합뉴스

## 전남대병원 항생제 처방 비율 최저

지난 3년간의 환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총 처방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3748만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전남대병원 2432만건, 부산대병원 2193만건 등의 순이다.

강원대병원은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총 처방 건수가 가장 적은 403만 건이었고 제주대병원 467만건, 충북대병원 521만건 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국 3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지난 3년간 항생제 처방비율은 17.56%로 대학병원(6.32%)의 3배에 육박했다. 이는 발치와 처치 등으로 생긴 상처를 꺾지 않게 하고 2차 감염을 줄이려 면 항생제 처방이 필수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이 다른 질병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Dream & Smile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 청출어람

【靑出於藍】

어제보다 나은 오늘  
스승보다 나은 제자...  
동신대학교의 내일은 오늘보다  
한걸음 더 앞섭니다.

동신대학교 2012학년도 제2학기 산학협력중점 비전임교원 및 2013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초빙

접수기간 | 2012년 11월 7일(수)~11월 9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마감 당일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홈페이지 | http://www.dsu.ac.kr

※문의 및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번지 교무처 교무연구팀 전화 061-330-3024, 3025 팩스 061-330-3029